

윤유선 "최화정에 식고문 당해...울면서 집 갔다"

등록 2026.02.13 09:41:51



[서울=뉴시스] 배우 윤유선 부부가 지난 12일 방송한 KBS 2TV 예능 프로그램 '옥탑방의 문제아들'에 게스트로 출연했다. (사진=KBS 2TV '옥탑방의 문제아들' 캡처) 2026.02.13. photo@newsis.com *재판매 및 DB 금지

[서울=뉴시스]신지아 인턴 기자 = 배우 윤유선이 방송인 최화정에게 식고문을 당한 적 있다고 말했다.

윤유선 부부는 지난 12일 방송한 KBS 2TV 예능 프로그램 '옥탑방의 문제아들'에 게스트로 출연했다.

김숙은 "최화정이 간단하게 떡볶이를 먹자고 했는데 튀김, 순대를 다 시켰다"며 "다 먹고 입이 텅텅하지 않냐며 카페에서 빵을 한가득 들고 오더라"고 했다.

그는 "빵을 엄청 먹었더니 또 매콤한 거 당기지 않냐고 했다. 또 냉면도 먹으러 가자고 했다"고 덧붙였다.

윤유선은 "나도 똑같다. 녹화 끝나고 오후 5시쯤에 최화정이 밥 먹자면서 두 공기를 먹고 카페에 가서 팬케이크를 먹었다"고 말했다.

그는 "최화정이 우리 이런 거 먹었으니까 당시 유행했던 샌드위치를 또 먹었다"며 "그런 걸 먹었더니 매콤한 걸 먹으러 가자고 했다"고 했다.

윤유선은 "전 올면서 집에 갔다. 화정 언니는 그러고 아는 동생이랑 또 뭘 먹으러 갔더라"

홍진경은 "저는 제 패턴을 유지한다. 최화정이 나같은 애들 만나면 밥맛 떨어진다고 했다"고 말했다.

©공감언론 뉴시스 sja29@newsis.com

Copyright © NEWSIS.COM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